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문화비 소득공제 10%p ↑

비상경제민생회의

수출 부진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쳐 관광 활성화로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

여행가서 숙박하는 국민 100만명이 3만원 할인권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을 예약한 18만명도 1만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KTX·SRT 등 철도와 항공 이용시 15만3000명에게 1만~2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영화, 연극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시 소득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최근 수출 부진에 고물가와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 즉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 가량 재정을 쏜다.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

내수 붐업(Boom-up) 패키지

릴레이 이벤트	대대적 할인행사	실속 정부지원
50여개 메가이벤트 연중 개최로 관광붐 확산	전방위적 업계 동참으로 대규모 기업 할인행사 실시	필수 여행비용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지역축제 스케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역축제 테마별 연계해 개최 ■ 지자체 소비쿠폰, 할인행사 지원 ■ 지역 연고기업 후원 및 동참 	
전국적 개최, 전방위 지원 지역축제 활성화		
국내 소비 기반 강화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상향 (4~12월) 문화비 30 → 40% 전통시장 40 → 50%	
지역·소상공인 상생 생계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해도 상향 지류 50 → 100만 카드 100 → 150만 모바일 50 → 150만 ■ 마트·전통시장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 20~30% 할인 (4~6월) ■ 통신요금 마일리지 납부 절차 간소화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그래픽

놀이동산 온라인 예약 1만원 쿠폰
KTX 5월 4인동반석 어른 50% ↓
SRT 봄·가을 조기예약 등 최대 30%

4월 서울페스타, 5월 봄빛 동행축제
6월 '여행가는 달' 지정 쿠폰 지급
지자체, 공공주차장 등 무료 개방

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여행비 할인 혜택을 준다.

예컨대, 네이버, 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100만명에게 3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국내여행비 10만원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철도 할인 폭도 대폭 늘렸다.

KTX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자녀(2명부터) 등록 가족이 4인 동반석을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 할인이 50%,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SRT도 봄(4월 1일~17일)·가을(10월)

기간 중 승차율, 조기예약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한다.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씩 상향된다.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각각 오른다.

기업의 문화 관련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최대 170억원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온라인 소핑몰 등에서도 20% 할인을 적용한다.

전국 테마별 지역 축제도 확대한다.

4월 서울페스타, 5월 K-팝 부산 드림콘서트, 봄빛 동행축제 등이 연이어 열린다. 6월은 '여행가는 달'로 정해 교통, 숙박, 유원시설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7~8월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 10월 부산국제영화제와 e스포츠대회(롤드컵) 등도 이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내 숙박·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무료 개방한다.

4월부터 공휴일과 명절, 징검다리 연휴 때마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할인 이용권이 지급된다. 5월 5~7일·5월 27~29일 두 차례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지역 특화 간식을 최

대 33% 할인한다.

11월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존 15일에서 20일간 확대, 운영한다. 앞서 5월에는 전국 면세점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가 열린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방문 관광객도 올해 1000만명 이상 목표로 중국·일본·동남아 등 항공을 80~90% 가량 증편한다.

내외국인 여행자들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오는 5월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이 대외적 영향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한계가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행·여가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생계비마저 빠듯한 상황에서 반짝 할인 쿠폰을 쏜다고 내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떡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겠다"며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상의 편의를, 지역의 온기를, 경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온누리상품권 연중판매... 가맹점 확대도

중기부,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보고 '중소·소상공인 활력제고 방안'

정부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이벤트를 꾸준히 연다.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하고 가맹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소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5월에 조기 실시해 상반기 소비를 진작시킨다. 또 9월과 12월을 포함해 3회로 늘려 연다. 지난해 실적의 2배 이상인 3조원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할인, 지역축제·행사, 해외마켓 연계 등 세부프로그램도 다양해진다.

특히 5월 동행축제는 '가정의 달', '중소기업 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 캠페인으로 확장된다. 동행축제 주요 행사를 지방에서 개최해 지역축제와 연계한다. 유통제조·플랫폼 대기업 220여개사, 소상공인 상점가·전통시장 1800여곳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해 함께 캠페인 확산에 노력한다.

9월 동행축제는 추석명절 전 민간기업,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관측행사를 진행한다. 12월의 경우 온·오프라인 관측 행사, 협·단체 등과 연계한 바자회

등을 연다.

명절 등에 한정해 실시했던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도 4월부터 연중 진행한다. 개인별 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지류 100만원, 카드 150만원, 모바일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소비자편의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 20만개 돌파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미가맹 상점 대상으로 가맹을 독려하면서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 소속 가맹점을 늘린다.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개편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에 국내외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도록 접근성도 높인다. 중기부는 팔도장터 열차와 같은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통시장 해외홍보 설명회를 실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한덕수,尹 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 (국무총리)

'남는 쌀 강제매수법' 작심 비판 시장 수급 조절 무력화 시킬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된다.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지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의 가격 보장제가 생산량 증가 등 부작용으로 중단된 사례, 태국의 2011년 가격개입정책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된 사례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 수기자 hys@

카카오, 올 북미 웹툰·웹소설 진출 본격화

>> 1면 '해외매출 2배 성장'서 계속

◆카카오, K팝 시장 공략

SM을 인수한 카카오는 글로벌 콘텐츠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K팝 시장 공략에 뛰어들 것으로 계획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엔터와 글로벌 웹툰 자회사인 카카오픽

코마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당초 매출은 2조 5699억원, 영업이익은 2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SM을 인수하며 매출 3조 5000억원, 영업이익 3700억을 기록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매출은 4조 4000억원, 영업이익 5000억원 달성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출의 35%가 웹툰에서 발생하고, 30%는

K팝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카오는 또 SM과 협업을 통해 웹툰·웹소설 분야 사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웹툰·웹소설에서 SM 가수를 등장시키면 팬층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카카오엔터는 올해 북미 웹소설 진출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타파스엔터는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를 로맨스의 축으로, 우시아월드를 액션 및 액션판타지의 축으로 삼아 IP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채윤호 기자 echo@